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4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16일 (음력 6월 4일) 월요일

광주시, 도철2·경제부시장·518m 타워 가닥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18m 빛의 타워' 건립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15일 "일방적 추진은 없을 것이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광주시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후보가 518m 타워 건립을 제안하며 예시로 든 해외 초고층 타워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과 문화경제부시장 518m 빛의 타워 등 민선 7기 초반 이슈들에 대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低深度) 공법에 반대해온 시민단체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 시민단체 대표단 회의를 열어 도시철도 공론화 방식으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최종 확정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여자재민, 시민플랫폼 나들 등이 논의에 참여했다.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는 지역별·성별·연령별로 시민 300명을 선정해 화상과 토론 질의 응답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내는 방식이다. 500명의 시민이 합숙 등에 참여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축소판이다.

시는 총길이 41.9km의 순환선인 도시철도 2호선을 평균 4.3m 깊이의 지하로, 즉 저심도 공법으로 건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단계는 2023년 마무리되고 완공시점은 2025년이다. 기본설계 기준 예상사업비는 2조5499억원이다.

반면 시민모임은 "인구와 자동차의 감소 추세,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통적인 지하철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안전성이 담보된 노면전차인 트램(Tram)이나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철2호선,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vs 신속성·실현성 문경부시장, 이병훈·박재영씨 거론 이번주 임명될 듯 518m 빛의 타워, '광주형 랜드마크' vs '정체성 훼손'

를 선호하고 있다.

민선 7기 초대 문화경제부시장 인선도 관심사다. 조작개발안이 의회에 제출됐고 자리 다름으로 파행을 빚은 시의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이른 다음주 초 초대 문경부시장 임명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인선을 위해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의회 승인을 거쳐 경제부시장으로 우선 임명한 뒤 추후 명칭을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문화 전반에 경제까지 아우를 중량급 있는 인사가 필요한 자리로, 이병훈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총괄선대본부장과 박재영 광주대 부총장이 허비평에 오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중앙 부처와 지방 정치권에서 이 시장과 인연이 깊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특히, 문화에 방점을 찍은 역할론상 '이병훈 카드'가 보다 유력시 되는 분위기다. 다만, 이 부부장이 최근 민주당 동남을 지역위원장에 단수추천된 만큼 지역위원장 대행 체제 전환 등의 정부적 교통정리는 필요한 실정이다. 옛 전남도청 복원문제를 놓고 5월 단체와 대립했던 전력이 지적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전국적 논란까지 낳은 518m 빛의 타워 건립 여부도 임장 정리가 필요하다.

시는 "518m 빛의 타워는 (민선 7기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가 광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기능과 함께 도시의 불거

리와 다양성을 부각시키고 광주의 대표산업인 관광업을 접목해 역사,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테마공간으로 건립을 검토한 과제일 뿐 일방적 추진은 없을 것이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시장이 앞서 지난 2일 민선 7기 첫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의 자산을 활용한 랜드마크 광산업 발전, 미래먹거리,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고 민간이 돈을 만들고 분양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정제된 소신'을 밝혀, 백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518m 타워는 2005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물 상부에 518m 높이의 민주·인권타워를 세우자는 의견이 처음 제시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출마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도쿄 스카이트리와 토론토 CNE타워 등을 벤치마킹한 그랜드디자인의 일환으로 다시금 꺼내들었고, 시민단체와 문화계 건축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광주의 도시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거대 건축물이다", "수천억원으로 예상되는 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조달한다는 건 민생과 거리가 멀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신봉우 기자



암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가도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마찬가지로 입국 시 세관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관세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BS는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전직 직원들의 말을 인용해 박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공항을 이용할 때마다 세관을 무사 통과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전직 직원들은 박 회장 일가의 짐에는 특별한 표시가 돼있으며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들은 직원들이 따로 가지고 온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세관당국에 짐을 빨리 옮기기 위해 검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며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 내용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탈수·일수 혐의에 대한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과 유사하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시스



“교장 갑질, 힘들어요” 전남 모 초등학교 전체교사 연판장

전남지역 한 소규모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장의 갑질을 폭로하며 장석용 전남도교육감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전남 A초등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이 학교 전체 교사 6명이 최근 전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교장의 갑질적인 학교운영과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폭로했다. 교사들은 연판장 형식의 자료를 통해 교장의 갑질을 사례별로 제시했다.

교사들에 따르면 교장은 주차장 사용시 교장부터 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 순서대로 주차하도록 지시했다. 학교에는 서열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아닌 직급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쁜사람이라는 이유를 댔다.

또 교사들은 교장이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사 6명 교장 갑질 학교운영·인권침해 폭로
교육청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 '실효성 의문'

로 인사 훈련을 시킨 뒤 제대로 하지 않은 교직원들이 있다며 제대로 할 때까지 반복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결재하면서 교사를 1시간 30분 동안 세워 두거나, 일방적인 학년 배정과 업무분장을 하고 교직원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장은 2년 전 초빙공모제교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은 "인격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인격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며 "교장의 일부 발언과 명령은 학교 구성원의 자존감과 민주적 학교문화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교사들과 잘 지내면서 학교운영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교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모든 것이 제 부탁의 소책이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연판장을 토대로 사실 확인작업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현장조사를 나갈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남감찰담당관을 지정하고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정환 기자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사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은원, 참새미골, 화엄사, 설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복사 등을 지나며 우천-산봉 구간부터 목아재-기반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